

# 기독교 박해지수

## WORLD WATCH LIST 2026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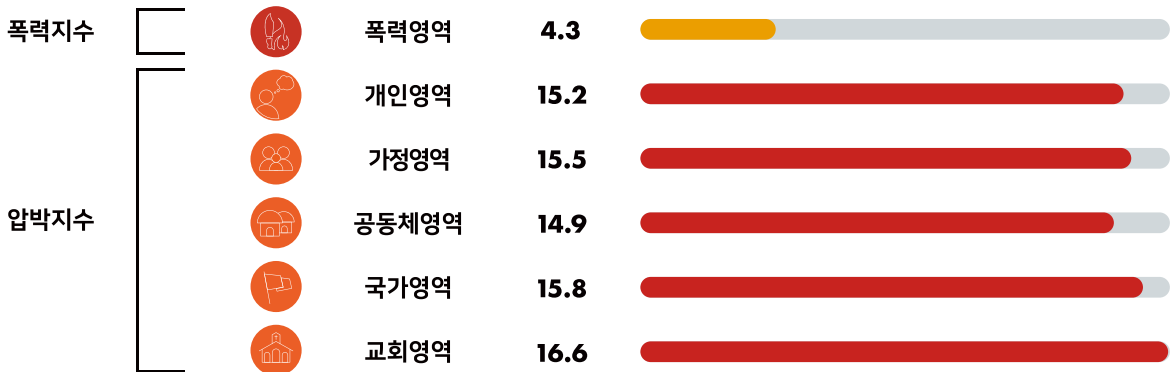
###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기독교 박해지수  
**13** 위



© Pexels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 중요한 발견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 출신이며, 서방 국가 출신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은 민족적 배경과 낮은 경제적 지위 때문에 착취, 저임금, 언어적·신체적 학대를 겪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은 이들의 취약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는 무슬림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할 경우 구금과 추방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2025년까지 여러 명의 해외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에서 추방되었으며, 일부는 그 이유가 “기독교”라는 말을 들었고, 대부분은 아무런 이유도 통보받지 못했다. 기독교로 개종한 외국인 무슬림들 역시 대개 자신들의 출신국 출신 해외 거주자 공동체 안에서 밀접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본국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박해를 경험한다.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소수의 사우디 기독교인들은 특히 가족들로부터 극심한 압박을 받으며, 대체로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유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수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과 기독교 위성 TV 채널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나누고 있지만, 이는 종종 가족과 당국으로부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 국가 정보

지도자 :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  
인구 : 37,990,000명  
기독교인 수 : 2,295,000명<sup>1</sup>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절대군주제



##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2,295,000	6.0
무슬림	34,284,000	90.2
힌두교	788,000	2.1
기타	623,000	1.7
합계		100%

출처<sup>2</sup>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변모했으며, 정당이나 민주적 선거가 없는 권위주의적 절대군주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 왕위에 오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은 곧바로 예멘에서 시아파 후티 반군을 상대로 군사 행동에 나섰는데, 이는 주로 그의 아들 모하메드 빈 살만이 주도한 것으로,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 최근의 개혁으로 여성들은 남성 보호자 없이 운전하고 여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교 경찰의 존재도 크게 축소되었다.

이슬람의 가장 성스러운 두 장소인 메카와 메디나(무함마드의 출생지이자 매장지)의 수호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엄격한 이슬람 해석인 와하비즘을 따른다. 다

른 종교들은 공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나라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시아파 소수집단은 체계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

약 230만 명의 기독교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아시아 출신의 임시 해외 노동자들이다.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 통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90% 이상이 로마 가톨릭 신자이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우디 국민은 배교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배교를 이유로 한 사법적 처형이 문서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학교 교과서는 비무슬림에 적대적인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상당한 개혁을 거쳤지만, 이전 교과서들이 여전히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는 계속해서 비무슬림 종교의 공개적 실천을 금지하고 있으며, 종교적 소수자들은 법률, 교육, 고용 영역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



##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 이슬람주의적 억압

사우디아라비아는 근본적으로 와하비즘에 의해 규정되며, 꾸란과 순나가 헌법으로 선언되어 있고 샤리아가 법적 토대가 된다. 오직 와하비 이슬람만이 공개적으로 실천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배교는 법적으로 사형에 해당하지만, 최근 이 죄목으로 사법적 처형이 집행된 사례는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슬람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들의 수호자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은, 이슬람 정통성의 수호자라는 국가의 자기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

### 씨족적 억압

부족 및 씨족 구조는 사우디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결혼, 고용, 재산 거래, 사회적 지위에까지 영향을 준다. 성(姓)은 부족 소속을 드러내며, 이러한 연계가 없는 사람들, 특히 비무슬림 해외 거주자들을 향한 전반적인 멸시가 존재한다. 이러한 억압은 이슬람 정체성과 직접 맞물려 있으며, 특히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슬람을 떠나는 것은 가족과 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여겨지며, 이는 직계 및 확대가족 구성원들의 폭력적 반응을 자주 촉발한다.

###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사우디 왕정은 절대적 통제를 행사하며, 왕실은 잠재적 반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억누른다. 국왕과 왕세자는 헌 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우디인들은 이슬람의 두 성지를 수호하는 국가라는 명성을 훼손하는 존재로 여겨지며, 이 때문에 당국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한다. 정부 관리들은 때때로 가족이나 지역 사회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사우디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기도 하며, 해외 출신 기독교인들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에 대한 비자 수수료 인상이나 통신킴시 강화와 같은 일반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독교인들은 거주 지역과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박해를 겪는다. 해외 노동자들은 고용 상황에 따라 전국에 분포해 있지만, 박해의 강도는 전국적으로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된다. 농촌 지역은 사회적 통제와 종교적 보수성이 현저히 더 강해, 무슬림 배경 신자들에게 특히 위험한 환경을 형성한다.

서방 출신 해외 거주자들의 거주 단지는 이러한 양상에서 예외적인 공간으로, 감시가 덜하고 이슬람 규범에 순응해야 한다는 압력도 상대적으로 적다. 리야드와 제다 같은 주요 도시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제한적이거나 관용이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였지만,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은 여전히 사우디 전역에서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 누가 영향을 받는가?

###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는 대부분 로마 가톨릭 신자들로, 아프리카, 아시아, 서방 국가들에서 일자리를 찾아 사우디아라비아로 온다. 저소득 국가 출신 이주민들은 무슬림 다수 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민족적 배경과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학대를 겪는 경우가 많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지속적인 압력에도 시달린다. 이들은 무슬림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할 수도 없고, 합법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지만, 일부 예배는 큰 간섭 없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공동체에는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대개 출신국 기반의 소규모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본국에서와 유사한 박해를 겪는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독교 개종자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은 극심한 위험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유지하며, 규제된 TV 프로그램과 인터넷 자료를 통해 기독교를 접한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sup>1</sup>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sup>2</sup>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은 엄격한 남성 보호자 제도 아래 살아가며, 이로 인해 사생활과 신앙의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한다. 이들은 폭력, 강제결혼, 가택 연금, 이혼, 자녀 양육권 상실을 포함한 심각한 가족 및 지역 사회의 압박에 직면한다. 명예살인의 위험과 더불어 이를 막아 줄 구체적인 법적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밀 신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감시와 가족에 대한 의존은 여성들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수천 명의 기독교인 여성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카팔라 제도 아래에서 성적 학대, 착취, 임금 갈취를 겪고 있다.

###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 형태:

- 사회적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차단
- 자녀 양육권 박탈
- 종교적 복장 규정 강요
- 강제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 남성

남성 중심 사회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남성들은 심각한 후과에 직면한다. 이들은 공개적인 수치, 구타, 투옥, 가족과 소득의 상실, 심지어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가족들은 종교적 "재교육"이나 물질적 보상을 통해 이들이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도록 압박할 수 있다. 개혁으로 종교 경찰의 권한은 축소되었지만, 공개적인 기독교 신앙 실천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직장에서 차별을 겪고 승진이나 임금 인상을 거부당하며, 현지 기독교인이든 이주 기독교인이든 모두 기독교 상징물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된다. 지속적인 감시 아래에서, 대부분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비밀 신자로 살아간다.

###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강제로 집에서 쫓겨남(추방)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월드 와치 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13	82
2025	12	81
2024	13	81
2023	13	80
2022	11	81

전체 점수는 81점에서 82점으로 1점 상승했는데, 이는 주로 폭력 점수의 상승에 따른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해지는 압박은 여전히 극도로 높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외적으로는 개방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국가처럼 자신을 내세우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 영역에서 일부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에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기독교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이 이루어졌다. 해외 출신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조사를 위해 구금되었고, 이후 추방되었다. 한 가정교회는 폐쇄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접촉을 받은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국외로 추방되었다. 동시에 비이슬람 종교의 공개적 실천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종교적 소수자들은 계속해서 차별을 겪고 있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날 세계에서 교회 건물의 건축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금지된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해외 출신 기독교인들은 조사를 위해 구금되었고, 결국 추방되었다.
- 한 가정교회가 폐쇄되었고, 참석자들은 개별적으로 접촉을 받은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국외로 추방되었다.



## 개인 영역

사우디아라비아의 반(反)전도법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개종자들은 가족과도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해외 출신 기독교인들의 경우, 신앙에 관한 대화는 해고와 추방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 종교 관련 활동을 하는 것 역시 광범위한 디지털 감시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상징물을 드러낼 수 없으며, 아랍어로 된 기독교 자료를 소지할 수도 없다. 개종자들은 가장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는데, 여기에는 배교법에 따른 잠재적 투옥도 포함되지만, 최근에는 배교를 이유로 한 사법적 처형 사례가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

## 가정 영역

비이슬람 종교 관행은 금지되어 있어, 기독교인들은 예배, 세례, 결혼식을 거행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이루어진 기독교식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우디인들은 자신의 신앙이 드러날 경우 자녀 양육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다. 사우디 법에 따르면, 사우디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기독교인들은 자녀가 이슬람 방식으로 양육되도록 하기 위해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한다. 기독교인 부모들은 종교 교육이 엄격히 통제되고, 자녀들이 개인적 신념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슬람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사우디 학교 제도 안에서 자녀를 자신의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 지역사회 영역

기독교 개종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서 지역 사회 차원의 강한 박해에 직면한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이 알려질 경우 위협, 폭력, 실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

다. 지역 사회는 개종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한다. 해외 출신 기독교인들은 취업 지원 과정에서 자신의 종교를 밝혀야 하며,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저소득 국가 출신 노동자들의 취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일부는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무슬림으로 등록한다.

## 국가 영역

사우디 법은 신성모독, 종교적 명예훼손, 비이슬람적 전도를 금지하며, 비이슬람 예배의 공개적 표현도 함께 금지한다. 기독교인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기검열을 한다. 성탄절 장식은 도시 지역에서 점점 더 용인되고 있지만, 그것들은 종교적 물품이 아니라 "계절용" 물품으로 판매된다. 기업 로고 역시 종교적 이미지가 있는지 심사를 받는다. 기독교인들은 정부 고위직이나 군 지휘직에 접근할 수 없다. 사우디 법정에서 기독교인의 증언은 거의 효력을 갖지 못하며, 시민권 신청은 암묵적으로 이슬람 신앙을 요구한다.

## 교회 영역

사우디아라비아는 교회 건물과 공식적인 기독교 조직을 금지하고 있다. 해외 출신 기독교인들은 사적인 공간에서 비공식적인 교제를 이루지만, 당국은 이러한 모임을 일상적으로 감시한다. 서로 다른 가족 출신의 남성과 여성이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성별 분리는 예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아랍어로 된 비이슬람 종교 자료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다. 해외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론상 개인용 성경 한 권을 소지할 수 있지만, 세관 당국은 성경을 소지한 비서구권 출신 기독교인 노동자들을 괴롭혀 왔다. 온라인 종교 콘텐츠 역시 필터링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2.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3.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여성 기독교 개종자들은 남성 보호자 제도의 존재로 인해 폭력과 기본적 권리의 심각한 박탈을 겪고 있다 (CEDAW 제2조, 제5조)
- 여성 기독교 개종자들이 발각될 경우, 이들은 자택에 감금되거나 가족들에 의해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다 (CEDAW 제15조)
- 여성 기독교 개종자들은 새로운 신앙을 철회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무슬림 남성과 강제로 결혼당하며,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이혼과 자녀 양육권 상실의 위험에 직면한다 (CEDAW 제16조)
- 기독교 개종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 (CRC 제14조)

##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시아파 무슬림들(인구의 10%)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이들은 이단으로 간주되며, 사법, 교육, 고용, 정부 대표성에서 불평등을 경험한다. 시아파 권익 옹호자들은 반정부 혐의로 체포되거나 처형될 위험에 처한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여러 명의 시아파 남성들이 테러 혐의, 종교적 신념, 또는 시아파 정체성과 연관된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처형되었다고 알려졌다. 위구르 무슬림들을 포함한 다른 종교적 소수자들도 중대한 제약과 잠재적인 추방 위험에 직면해 있다.



## 오픈도어의 사우디아라비아 사역

오픈도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